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5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8월 6일)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3000여 포교사들 "자비 등불 밝히겠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9월 9일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19회 팔재계수계대법회를 봉행하고 전법의지를 다졌다. 3000여 명의 포교사들은 한목소리로 "이웃과 사회를 위한 자비의 등불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팔재계수계대법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고 8가지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발원의 장이다. 무박 2일 8재계를 수지하며 철야정진하고 포교 원력을 견고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활동 우수 포교사 시상과 제1회 포교활동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신규 포교사와 전문포교사 품수식도 이어졌다. 올해 품수대상자는 신규 398명, 전문 7명이다.

글= 임은호 기자, 사진제공=포교사단

# '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 격론 끝 이월

## 조계종 중앙종회 제228회 임시회서 찬반 갈려

**개정 취지 "종단 인재 풀 확대"**
**만당 스님 외 38인 발의했지만**
**"삼권분립 훼손" 등 반대의견도**
**의결정족수 '52명' 부담 큰 듯**

**교구장 권한 축소 법안도 이월**
**"본사주지 의견 더 들어보기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의 총무원 교역직 종무원 겸직금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이 격론 끝에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9월 12일 개원한 제228회 임시회에서 만당 스님 외 38인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종헌 개정안을 이월키로 했다. 대표 발의자 만당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종무행정에 적극 활용해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회의에서는 의원스님들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가장 먼저 진화 스님은 1994년 개혁 당시의 삼권분립 의미를 짚으며 "종회의원이 사서실장을 비롯해 웬만한 부실장을 다 맡을 수 있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만당 스님은 "부실국장 임명권은 총무원장에게 있고, 종회의원 일색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지만 장관이 되면 국회활동을 알아서 자제한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오심 스님은 "이번 분한신고에서 스님들이 2000명이 줄었다. 출가자가 줄고 고령화되는데 30년 전 개혁을 지금 논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인 현무 스님은 "이 법으로 인해 얻을 효과와 반대급부를 잘 생각해야 한다"며 "기우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과오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다시 생각해볼 일"이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도성 스님은 종헌 개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종단 행정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정범 스님은 반대로 "수십 년간 이어온 견제와 균형이라는 종법 체계를 한두 조항만 고쳐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말하며 찬반이 계속됐다.

이처럼 회의에서는 1994년 개혁 당시의 삼권분립 의미, 중앙종회의원의 과대한 권한 확대라는 반대 의견과 시대 변화에 따른 인재풀 확대, 교역직 겸직으로 얻는 시너지라는 찬성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자 만당 스님은 종헌 개정안의 이월을 요청했고, 중앙종회는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이월키로 했다. 종헌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회의 분위기상 반대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적의원 77명 중 52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출석의원이 68명에 불과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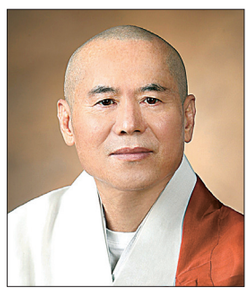
본사주지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구자들이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이월됐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회의에선 종회의원 권한 확대 요소가 담긴 종헌 개정안을 다루면서 본사주지의 권한은 축소하는 법안들이 연달아 나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주요 인사안에서는 새 중앙선관위원장에 추천된 직할교구 태성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재심호계위원인 화엄사 진만 · 봉선사 인묵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으로는 각각 두 스님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으로는 용주사 탄정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봉선사 환풍 · 용주사 탄원 스님이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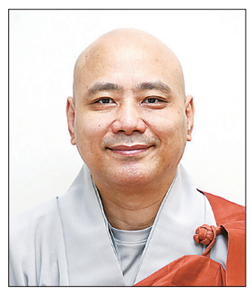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백양사 원철 · 화엄사 영일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은해사 돈관 · 성원 스님은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무량회 회장 일화 스님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모든 안건을 처리한 중앙종회는 5일간의 회기를 앞당겨 개원 하루 만에 폐회했다. 〈관련 기사 2면〉

# 조계종 교육원장 범해 스님
#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 중앙종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선출



범해 스님



선업 스님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에 범해 스님, 포교원장에 선업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9월 12일 열린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교육원장은 혜일 스님이 지난 2월 사직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 이어졌다. 또한 포교원장은 범해 스님이 교육원장에 추천되면서 포교부장인 선업 스님이 추천됐다.

범해 스님은 제10대 교육원장으로 선출된 뒤 "종회의원스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종단 교육, 스님 교육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게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제9대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다. 종회의원스님들 말씀을 잘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범해 스님은 성원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했다. 해남사 · 무룡사 주지, 총무원 문화부 문화국장을 거쳐 제14 · 15 · 16 · 17대 종회의원과 제17대 중앙종회의장을 지냈다. 제8대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약사사 주지를 맡고 있다.

선업 스님은 진철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황룡사 · 통담선원 주지, 포교원 포교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충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 모로코 강진에 불교계 애도 · 구호 손길

## 진우 스님, 9월 11일 애도 메시지
## "국민 구호 · 지원 적극 나서겠다"
## 상진 스님도 극락왕생 발원 위로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불교계에서 애도와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11일 '모로코 강진 피해 애도 및 지원 성명'을 내고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로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9월 8일 120년 만에 모로코를 덮친 진도 6.8의 지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사를 달리 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아직도 잔해에 갇혀 계신 실종자 분들이 무탈하게 생환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같은 날 "태고종 사부대중은 불의의 강진으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빌며, 부상자들도 하루 속히 치유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아름다운동행은 회의를 통해 선발대를 급파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지진 재난과 관련, 긴급모금도 진행 중이다.

모로코 긴급모금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하나은행 271-910006-64104)과 더프라미스(하나은행 105-910014-80104)에 후원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삶의 터전을 잃은 모로코 국민을 위해 식량과 의료물품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알립니다** 제1453호(9월 27일자)는 특집호 제작과 추석 연휴로 인해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바랍니다.

천년을 세우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순례기도 안내



매일 사시에 기도법사 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및 축원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어 다라니 108독송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님과 불자들의 순례기도를 통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불교중흥, 국운융창을 발원하는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게시판 (QR코드 참조)
문 의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02-737-0862 / 010-9454-0862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 접수 안내

- 천 일 기 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 기 도 법 사 : 환풍스님·선우스님
- 기 도 신 청 : 전국 사찰 종무소(수시접수)
- 기도동참비 : 100일 10만원 / 1년 30만원 / 1000일 100만원
  - 매일 동참자 축원기도 올립니다

※ 열암곡 다라니 108독송 기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시에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다라니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 아름다운 동행)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문의 : 02-6273-0108(아름다운 동행)



「천년을 세우다」 주요사업 :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센터 건립 / 미래세대 인재양성 / 교구(지역불교) 활성화 / 출가장려위원회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